

尹측 '계엄·포고령 발표' 인정...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증인 15명 신청 尹 변호인단, 국회 탄핵소추·헌재 서류 송달 적법 여부 쟁점 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국회 소추단과 윤 대통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진행된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적법 여부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은 40여 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 기일을 1월 3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지만, 심리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 법률대리인인 배보운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와 헌재 탄핵서류 송달 적법 여부 등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들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배 변호사는 "네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배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적법하지 않다"면서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소송에 응해 하자마자 치우쳤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송달 문제는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선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국회측 법률대리인단과 윤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소추의결서를 두고 서로 맞서기도 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탄핵 소추의결서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윤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변호인단과 비교하면 저희 측(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구성이 적어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15명을 신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후 법정을 나오면서 "윤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직접 (헌재에) 나와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변호인단 꾸린尹, 13일만에 탄핵 심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소추안 가결 13일 만에 탄핵심판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27일 오전 법률대리인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배보운(6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27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는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71)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71) 변호사, 이길호(43·4871)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고검장 출신 김홍일(68·1571)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률대리인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법률대리인단의 공보업무는 윤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헌재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구성이 끝난 게 아니라 추가될 것"이라며 "추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민주 "재판관 임명·쌍특검 수용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명칭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수용 시기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 너무나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만약 다음 달 1일인 쌍특검법 공포 시한을 넘기고, 결국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즉각 탄핵에 나설 것인지 묻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최상목 대행 체제

헌법재판관 6인체제 장기화 우려...헌재 "6인체제서 선고 결정된 것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한 대행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게 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구도를 고려하면 조기 재판관 공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

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밝혀 적극적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등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헌재는 전날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헌재가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6인 체제' 심리를 가능하게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에서 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비친 적이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며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헌재 공식

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즉, 재판관 6명의 의견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 등의 경우엔 추후 임명된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기에 선고를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6명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만약 헌재가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헌재의 헌재 모습을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6인 체제에서 결론은 물론 심리 진행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당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했는데,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